

탈착식(脫着式) 다기능 가구에 관한 연구

김경래
(홍익대학교 일반대학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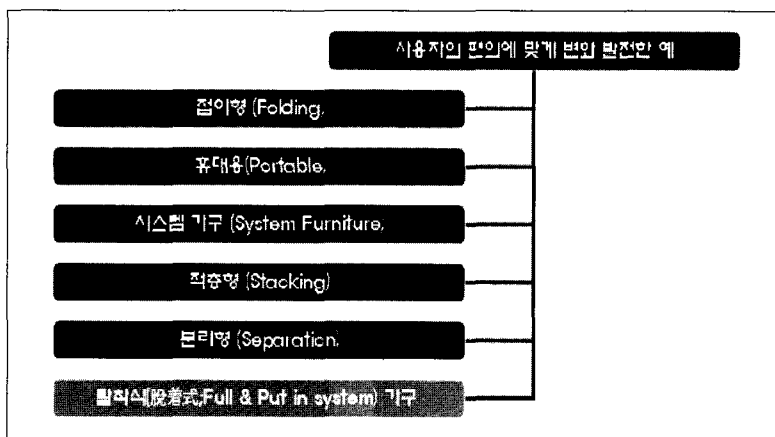
1. 서 론

1-1 연구목적

시대를 거둬함에 따라, 가구의 형태는 인류의 편의와 심미적 욕구에 발맞추어 발전되어 왔다. 그와 함께 가구의 기능이 특정화 되고, 기능에 알맞은 다양한 형태의 가구로 발전하게 되었다.

현대에 이르러 삶의 질이 향상되고, 가정생활이 윤택해 지면서, 여러 가지 생활용품과 생활소품의 사용이 증가하게 되었고, 이에 의해 각각 형태를 달리하여 발전하게 된 것이다. 예를 들어 테이블이라는 가구는 여러 생활 방식의 등장으로 인해 일반적인 책상 모양의 것과 작은 소품을 진열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좌식용 및 입식용 등의 여러 가지 모양과 기능을 갖추게 된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점차적으로 편의에 맞게 변화 발전하였으며, 보다 작고, 가볍고, 형태가 변화 하는 등의 기능이 첨가 되면서 사용과 보관을 용이하게 하려는 노력 또한 점차 증가하게 되었다.

이러한 것을 크게 나누어 보면 접이식(Folding), 휴대형(Portable), 조합형 가구(Knock down System), 적층(Stacking), 시스템 가구(System furniture)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것은 각각 사용 목적과 배경에 따라 그 형태가 달리 나타난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중 탈착(脫着; Pull&Put in System)이라는 개념은 사용상의 편리와 공간의 절약, 사용자 위주의 다 기능성의 세 가지의 측면을 만족 시킬 수 있는 방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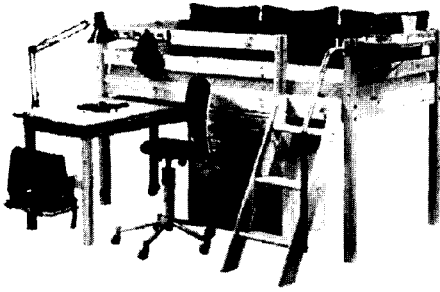


<fig. 1> 가구의 발전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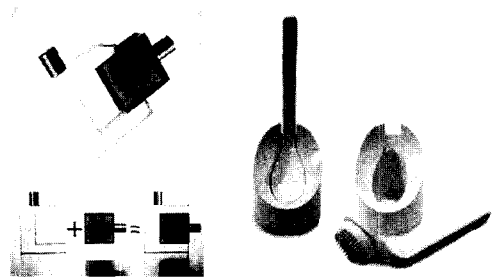
2. 탈착식(脫着式)가구의 정의

2-1 탈착(着脫)의 개념

탈착(脫着)²⁾의 개념은 어떠한 물체가 붙고 떨어지는 형상을 의미하는 말로써, 탈착식(脫着式)가구나 합은, 말 그대로 결합과 분리가 가능한 가구를 뜻한다. 여기서 조립식 가구와의 차이점은 조립식 가구의 경우 분리 되었을 때 각 부분은 부품으로서의 의미가 강하지만, 탈착식의 개념은 서로 떨어뜨려 놓는다 하더라도 그 기능적인 의미를 상실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



<fig. 2> 탈착(脫着)의 개념을 도입한 가구의 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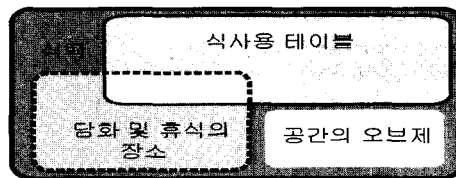


<fig. 3> 탈착(脫着)기능 활용 소품의 예

<fig. 2>에서 볼 수 있듯이 형태적으로 공간 활용이 용이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로 방의 크기가 작거나 또는 한 방에 여럿이 사용해야 하는 어린이용 가구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2-2 가구의 다 기능(多 技能)

우리의 주변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다기능 가구의 예로써 '식탁'을 들 수 있겠다. 식탁이라는 것은 식사를 하기 위한 테이블로써, 2~6명 또는 그 이상의 인원이 둘러앉을 수 있는 테이블을 뜻한다. 식탁은 식사를 위한 테이블 이라는 1차적 개념과 함께, 잠시 앉아서 담화를 나누다거나, 책 또는 신문 등을 보거나 하는 2차적인 개념, 그리고 생활공간 속의 한 오브제로써의 3차적 개념을 함께 하고 있다. 이처럼, 하나의 가구가 형태에 따라서 여러 가지 기능을 복합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가구의 다 기능(多 技能)이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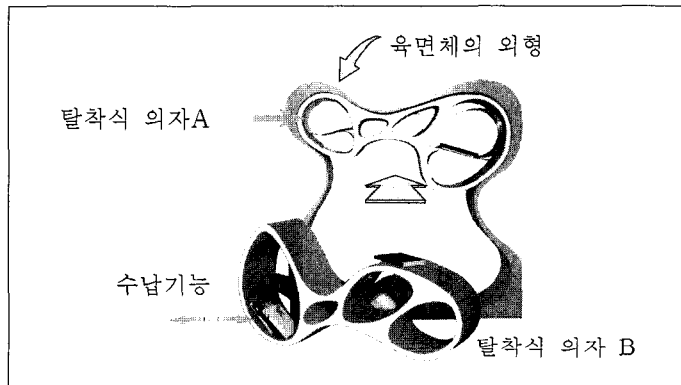
<fig. 4> 가구(식탁)의 다 기능적(多 技能的) 측면

2) 탈착(脫着) 붙였다 떼었다 합. <현대 국어사전. (理想社)>

3. 아이디어 전개과정

가구를 사용함에 있어서 특정화된 기능 보다는 다 기능적(Multi Functional)인 것이 요구되며, 정리가 간단하고 깔끔하여 보관할 때에도 심미적인 측면이 감소하지 않아 오브제(Object)적인 요소를 가지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또한 어떠한 가구를 사용함에 있어서 생활소품의 개념이기 보다 목적성 있는 '생활공간'으로써의 가구를 표현하고자 하였다.

3-1 형태의 전개



<fig. 5> 탈착식(脫着式) 가구

이 작업은 탈착(脫着)이라는 개념을 가구에 접목시킴으로써 보다 편리하고, 다기능적인 면을 강조하기 위한 프로토타입(Prototype)이었다.

기본적인 외형은 육면체의 형태를 유지 하였다. 육면체는 기본적인 장(幟)의 형태이기도 하며, 내부에 의자를 수납하기 위한 기능이 극대화 된 형태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탈착을 가능케 하기 위한 거대한 크기를 감수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었으며, 그 크기에도 불구하고 실용성이 떨어진다는 문제점 또한 지적할 만하다.

내부에 사용한 자유곡선의 형태는 거품에서 볼 수 있는 기포의 형상을 적용하였다. 이것은 외형의 직선적인 형태와 내부의 부드러운 곡선 형태가 대비를 이루어 심미적 긴장감을 더하는 효과를 보인다. 수납의 기능을 담당하는 부분에도 다양한 크기와 자유곡선의 타원을 사용함으로써 형태상으로 강약의 리듬감을 느낄 수 있다.

이것은 일반적인 장(幟)의 형태와 느낌이 매우 정적이며 딱딱한 것에 비하여 시각적인 리듬감을 느낄 수 있고, 이것이 곧 이 가구를 사용하는 즐거움이라고 할 수 있겠다. 또한 하드웨어(Hardware)의 사용 없이 형태상의 특징만을 이용하여 탈착(脫着)의 기능을 가능하게 하였다는 점이 특징적이며, 수납가구의 개념만이 아니라, 사람이 행위를 즐기는 공간의 기능도 같이 할 수 있다는 제안이 가능했다.

3-2 다 기능적(多 技能的) 측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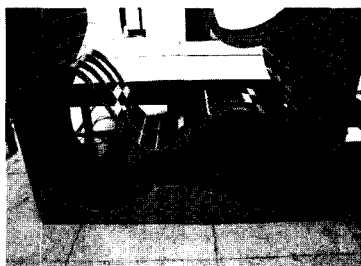
기존 책장의 경우, 다양한 크기의 책 또는 오브제(Object)를 진열할 수 있는 선반의 높이조절 기능 정도이다. 하지만 이 작업은 책장과 의자의 기능에 탈착(脫着)의 개념을 접목함으로써, 독서 등의 ‘행동 공간’으로의 세 가지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끔 하였다. 수납의 기능을 담당하게 되는 부분에는 투명한 재질의 폴리카보네이트 필름(Poly Carbonate Film) 재질을 도입함으로써 선반의 기능과 함께 끼워진 물건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부가적인 기능을 더하였다.



<fig. 6> 탄성이 강한 폴리카보네이트 필름(Poly Carbonate Film)

3-3 제작 과정

제작에 있어서 각각의 부분이 끼고 빠는 행위를 반복해야 하고, 장(織)이라는 특성상 그 크기가 크기 때문에 치밀한 구조를 연구 하지 않을 수 없었다.



<fig. 7> 기본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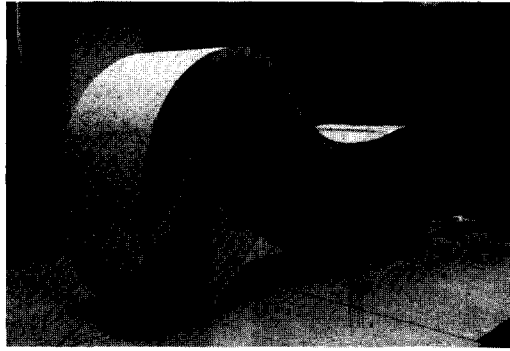
<fig.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본적인 재료는 M.D.F³⁾를 사용하였다. 기본이 되는 네 개의 뼈대와 그를 연결하는 다수의 가로대로 구성되었다. 그 위에 면을 고르게 할 수 있도록 탄성이 우수한 합판을 사용하였으며, 내부의 급격한 곡선부분은 합판의 파열 위험성 때문에 하드보드를 사용하였다. 최종 마감으로는 부드럽고, 약간의 완충을 느낄 수 있는 E.V.A⁴⁾ 소재를 사용하였다. 또

3) MDF(Medium Density Fiberboard)원목을 일정한 크기의 조각(CHIP)으로 깎아 이를 해섬(화학약품 처리 후 끓임)하여 섬유질만을 뽑아낸 뒤 접착제와 섞어 완력을 가하여 만든 제품

4) EVA(Ethylene Vinyl Acetate copolymer)

에틸렌과 비닐아세테이트의 공중합체 수지. 투명성, 유연성, 저온 취성 등이 우수하여 신발용 소재, 농업용 필름, 압출 코팅 등의 원료 수지로 사용되고 있으며, 연성이 우수하여 폴리염화비닐(PVC; Poly Vinyl Chloride)의 대체 소재로도 주목 받고 있다.

한 수납의 기능을 담당하게 되는 각 부분에는 폴리카보네이트(Poly Carbonate) 재질의 필름을 휘어 넣음으로써 수납의 기능을 극대화 시켰고, 필름의 사이사이에 잡지나 사진 등을 끼워서 보 관 할 수 있는 재미를 더하도록 하였다.



<fig. 8> 합판과 하드보드를 사용한 1차마감

색상은 실내공간에서 경쾌함과 따뜻한 느낌을 줄 수 있는 화이트(White)와 오렌지(Orange)색 상을 사용하였다. 또한 기본적인 색상 이외에는 장식을 배제함으로써 보다 정리된 느낌을 줄 수 있게 하였다.

4. 결 론

오늘날 삶이 풍요로워지고 윤택해 지면서 사람들은 보다 편리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추구하게 되었다. 또한, 문명의 발전은 활동범위의 확대를 가져온 반면 활동반경은 점차 축소되었고, 다양한 Life Style이 등장하면서 하나의 모습에 국한되지 않는 다기능적인 면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것은 타인과는 다른 자신만의 색깔을 고집하는 탈 획일주의적인 성향이 도래하였기 때문이다. 이런 사회적 변화는 인간생활에 있어서 많은 부분을 변화시켰고, 가구도 이러한 양상에 따라 많은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를 만족 시킬 수 있는 방법의 한가지인 탈착(脫着)의 개념은 두 가지 또는 그 이상의 기능을 가지게 할 수 있는 방법적인 면의 하나로써, 더욱 다양한 Life Style이 발현되는 미래 사회에 있어서 그 수요가 기대되는 방향이라 할 수 있다.

이 작업은 2006 Köln International Furniture Design Fair에 출품되어 좋은 반응을 얻은 바 있다. 이것은 가구의 실용적인 측면 뿐 아니라 심미적인 측면이 점차 강조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또한 가구로써의 개념과 작은 공간의 개념을 모두 가능하게 했던 탈착(脫着)이라는 개념의 발전 가능성을 제시 해 주었다고 할 수 있다.



<fig. 9> 2006 Köln International Furniture Design Fair 전시 광경